

비개발자 AI 교육 실패요인 사전점검표

교육 담당자용 · 7가지 위험 신호와 예방조치

교육 당일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7가지 위험을 점검합니다. 강사 섭외 전 · 교육 일주일 전 · 교육 직후, 세 시점에 나눠 확인하세요.

확인	실패요인	현장에서 보이는 증상	왜 실패하는가	담당자의 예방조치
☐	1. 도구 설명만 길고 실제 업무가 없다	기능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교육 후 무엇을 할지 모른다.	참가자의 업무 맥락과 도구 기능이 연결되지 않는다.	교육 전 대표 업무 3개를 받아 실습 예시에 반영한다.
☐	2. 참가자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로그인부터 막히고, 경험자는 수업이 너무 쉽다고 느낀다.	한 속도로 진행하면 초보자와 경험자 모두 놓친다.	사전 설문으로 사용 경험과 직무를 확인하고 자리·과제를 나눈다.
☐	3. 계정·기기·인터넷 준비가 안 된다	본인인증과 접속 오류로 실습 시간이 사라진다.	AI 교육은 계정과 네트워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연으로 끝난다.	교육 전날 접속 테스트와 로그인 안내를 보낸다.
☐	4. 프롬프트 정답을 외우게 한다	예문은 따라 하지만 업무가 바뀌면 질문을 만들지 못한다.	문장 암기만으로는 목적·자료·조건·출력형식을 설계하기 어렵다.	좋은 프롬프트의 요소를 보여주고 참가자 업무로 다시 쓰게 한다.
☐	5. 개인정보·보안 원칙을 뒤로 미룬다	실습 중 내부자료나 개인정보를 그대로 붙여 넣으려 한다.	안전 기준을 나중에 설명하면 이미 위험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첫 실습 전에 금지자료와 가상자료 사용 원칙을 확인한다.
☐	6. AI 결과 검토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사실 확인 없이 복사한다.	AI는 그럴듯한 오류, 누락, 오래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사실·숫자·출처·수신자·보안 범위를 확인하는 검토표를 쓴다.
☐	7. 교육 후 첫 적용 업무가 없다	수업 때만 쓰고 다음 날 원래 방식으로 돌아간다.	작은 적용 행동이 정해지지 않으면 배운 내용이 업무 루틴에 들어가지 않는다.	교육 종료 전에 일주일 안에 적용할 업무 1개와 날짜를 적게 한다.

일곱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거창한 시스템은 필요 없습니다. 교육 전 대상자·환경 확인, 교육 중 실제 업무와 검토 기준, 교육 후 첫 적용 업무 —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